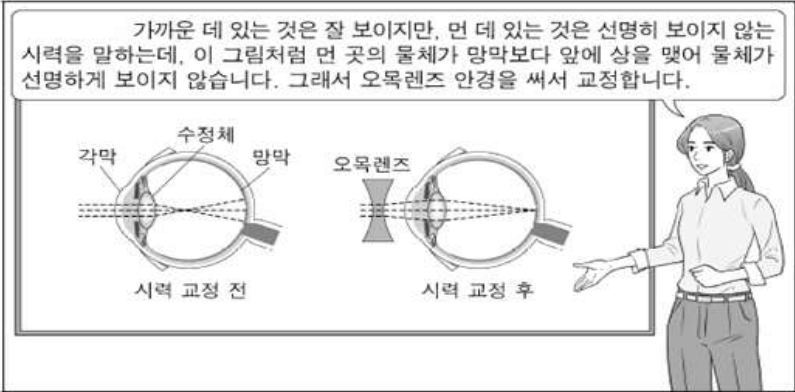


학 년	2	학년도	학기	2 차 지필평가 문제지		결 재	출제자	계	부장	교감	교장
		2024	1	한 문			김세옥 정진환				
응시학년	1	2	3								
응시학급		1~13반		“지혜를 버리지 말라,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.” (잠4:6)		2024년 7월 3일(수요일) 2교시 시행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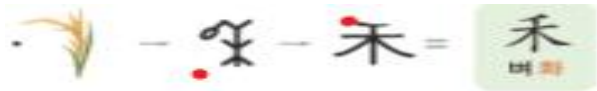
※ 본 시험은 선택형 30 문항, 논술형 0 문항으로 모두 30 문항입니다. 학생들은 시간을 잘 안배하고 출제 의도에 유의하여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.

1. 다음은 생명과학 시간에 근시(近視)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. 아래 그림이 말하는 한문 학습의 필요성은? [4점]



- ① 학습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
- ② 선인들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
- ③ 외국에서 한자로 소통과 교류를 하기 위해
- ④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
- ⑤ 한자를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

2. 아래와 짜임이 같은 한자는? [4점]



- ① 下
- ② 矢
- ③ 尖
- ④ 枯
- ⑤ 零

3. ‘陽地’과(와)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? [4점]

- ① 植木
- ② 月出
- ③ 歌謠
- ④ 東邦
- ⑤ 人造

4. 다음 필순의 원칙을 설명하기에 가장 알맞은 한자는? [2.7점]

좌우의 모양이 같으면 가운데를 먼저 쓴다.

- ① 川
- ② 十
- ③ 小
- ④ 中
- ⑤ 犬

5. 아래 글에서 ‘공자가 노자에게 예절을 묻다.’라는 문장을 완성하려고 할 때 ‘禮’가 들어갈 위치는? [3.5점]

孔子 ① 問 ② 於 ③ 老 ④ 子 ⑤

6. 그림의 내용을 문장의 구조로 정확히 나타낸 것은? [4점]



- ① 兄弟
- ② 兄弟投
- ③ 兄弟投金
- ④ 兄弟投於水
- ⑤ 兄弟投金於水

7. 아래 그림과 관련 있는 성어는? [2.7점]



- ① 塞翁之馬
- ② 先見之明
- ③ 事必歸正
- ④ 昏定晨省
- ⑤ 反哺之孝

8. 아래 내용과 관련 있는 성어는? [2.7점]

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,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일컫는 성어

- ① 兩者擇一
- ② 三十六計
- ③ 首丘初心
- ④ 伯俞之孝
- ⑤ 智信忠孝

9. ‘子欲養而親不待也’에서 유래한 성어는? [4점]

- ① 百年大計
- ② 說往說來
- ③ 風樹之歎
- ④ 附和雷同
- ⑤ 死生決斷

智·信·忠·勇				裕·信·高·等·學·校								
학 년	2	학년도	학기	2 차 지필평가 문제지			결 재	출제자	계	부장	교감	교장
		2024	1					김세옥 정진환				
응시학년	1	2	3									
응시학급		1~13반		“지혜를 버리지 말라,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.” (잠4:6)			2024년 7월 3일(수요일) 2교시 시행					

10. 아래 내용이 말하는 것은? [2.7점]

이 지역은 우리나라, 중국,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 인구의 1/4을 차지한다. 이들 지역은 서로 일부의 정신문화를 공유하고 있다.

- ① 한자문화권
- ② 라틴문화권
- ③ 이슬람문화권
- ④ 태평양문화권
- ⑤ 슬라브문화권

[11 ~ 15] 한자의 뜻과 음이 옳지 않은 것은?

11. [2.5점]

- ① 龜 거북 귀
- ② 苗 하늘 묘
- ③ 繼 잇다 계
- ④ 析 쪼개다 석
- ⑤ 竝 나란히 병

12. [2.5점]

- ① 巡 돌다 순
- ② 漠 넓다 막
- ③ 鏡 거울 경
- ④ 拒 막다 거
- ⑤ 募 모으다 집

13. [2.5점]

- ① 表 속 리
- ② 哭 울다 곡
- ③ 謠 노래 요
- ④ 殊 다르다 수
- ⑤ 軟 연하다 연

14. [2.5점]

- ① 奮 논 답
- ② 僞 거짓 위
- ③ 獸 짐승 금
- ④ 囚 가두다 수
- ⑤ 桂 계수나무 계

15. [2.5점]

- ① 蓮 연꽃 연
- ② 邦 나라 방
- ③ 粉 먹다 식
- ④ 某 아무 모
- ⑤ 影 그림자 영

16. 성어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? [2.7점]

- ① 改過遷善 - 개과천선
- ② 近朱者的 - 아전인수
- ③ 臨時方便 - 임전무퇴
- ④ 羊頭狗肉 - 목불식정
- ⑤ 滄海一粟 - 구우일모

17. 성어의 독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2.7점]

- ① 表裏不同 - 표리부동
- ② 刻骨難忘 - 각골난망
- ③ 近墨者黑 - 근주자적
- ④ 內憂外患 - 내우외환
- ⑤ 破竹之勢 - 파죽지세

18. ‘刻骨痛恨’의 풀이로 옳은 것은? [3.5점]

- ①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.
- ② 방자하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.
- ③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.
- ④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.
- 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임.

19. 의미가 다른 하나는? [4.5점]

- ① 孤立無援
- ② 進退兩難
- ③ 四顧無親
- ④ 四面楚歌
- ⑤ 隔世之感

20. ‘雪上加霜’과(와) 관련 있는 속담은? [2.7점]

- ① 새 발의 피.
- ② 앞친 데 뒤편 격.
- ③ 고생 끝에 낙이 온다.
- ④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.
- 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

학 년	2	학년도	학기	2 차 지필평가 문제지		결 재	출제자	계	부장	교감	교장
		2024	1	한 문				김세옥 정진환			
응시학년	1	2	3								
응시학급		1~13반		“지혜를 버리지 말라,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.” (잠4:6)		2024년 7월 3일(수요일) 2교시 시행					

21. 다음과 의미가 같은 성어는? [3.5점]

花無十日紅：힘이나 세력 따위가 한번 성하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- ① 羊頭狗肉
- ② 權不十年
- ③ 金石盟約
- ④ 九死一生
- ⑤ 百年大計

22. ‘九牛一毛’과(와) 의미가 같은 성어는? [4점]

- ① 結者解之
- ② 苦盡甘來
- ③ 公平無私
- ④ 九死一生
- ⑤ 鳥足之血

23. ‘八方美人’과(와) 의미가 같은 성어는? [3.5점]

- ① 水魚之交
- ② 同價紅裳
- ③ 能小能大
- ④ 伯牙絕絃
- ⑤ 牛耳讀經

24. ‘상대를 꺾기 위한 달콤하고 이로운 말’이란 뜻을 가진 성어는? [3.5점]

- ① 牽強附會
- ② 結草報恩
- ③ 姑息之計
- ④ 甘言利說
- ⑤ 輕舉妄動

25. ‘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’을 뜻하는 성어는? [3.5점]

- ① 馬耳東風
- ② 同床異夢
- ③ 滅私奉公
- ④ 亡羊之歎
- ⑤ 東問西答

26. ‘麥秀之歎’의 풀이로 옳은 것은? [3.5점]

- ①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.
- ② 고향을 그리워하며 탄식함.
- ③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 탄식함.
- ④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탄식함.
- ⑤ 학문의 갈래 앞에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탄식함.

[27 ~ 28] 다음 그림과 가장 관련 있는 성어를 찾으시오.

27. [3.8점]



- ① 口蜜腹劍
- ② 誇大妄想
- ③ 起死回生
- ④ 走馬看山
- ⑤ 竹馬故友

28. [4점]



<추사 김정희의 세한도>

- ① 騎虎之勢
- ② 大驚失色
- ③ 公私多忙
- ④ 內柔外剛
- ⑤ 獨也青青

학 년	2	학년도	학기	2 차 지필평가 문제지			결 재	출제자	계	부장	교감	교장
		2024	1					한 문			김세옥 정진환	
응시학년	1	2	3									
응시학급		1~13반		“지혜를 버리지 말라,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.” (잠4:6)				2024년 7월 3일(수요일) 2교시 시행				

29. 다음 □□□□에 들어갈 성어는? [4점]

‘동조자’는 베트남인 주인공 대위(호아 손데이)가 겪는 시대상과 그에 따른 정체성 변화의 여정을 섬세하게 따라간 작품이다. 풀리처상을 받은 비엣 타인 응우옌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박 감독이 직접 각색했다.

박 감독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“제가 베트남인도 미국인도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거리감이 있었고 그 덕에 객관성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다”고 했다. 그는 “비슷한 근현대사를 겪은 (베트남에) □□□□의 마음도 있었다”며 “내전의 배후에 강대국이 있었다는 사실, 남한 안에서의 이념투쟁같은 것은 한국인에겐 공기같은 일이다. 적어도 미국인보다는 그 정을 잘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”고도 덧붙였다.

동아일보 2024.4.18.

- ① 同病相憐 ② 明若觀火 ③ 無爲徒食
- ④ 三顧草廬 ⑤ 面從腹背

30. 다음 □□□□에 공통으로 들어갈 성어는? [3.8점]

김○○ 국무총리는 20일 모하메드 알 루미 차관 등 쿠웨이트 차관단을 서울 삼성동 총리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.

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“동양 격언에 □□□□라는 말이 있다”며 “비록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난 30여년간 교류를 통해 어느덧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□□□□가 됐다”고 밝혔다.

뉴시스 2011.9.20.

- ① 命在頃刻 ② 表裏不同 ③ 物我一體
- ④ 知己之友 ⑤ 目不忍見